

# 성경신학 개론

저자: 리차드 프렛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김문자 (Aunt-in-law)

제 4 강

신약 성경신학의 개관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sup>®</sup>.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 성경신학 개론

## 제 4 강 신약 성경신학의 개관

### 목차

<b>I. 서론(Introduction)</b> .....	<b>1</b>
<b>II.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b> .....	<b>2</b>
A. 이중 계시(Twofold Revelation)	2
B. 신학 구조들(Theological Structures)	3
1. 기초 수준의 구조들(Basic-Level Structures)	3
2. 중간 수준의 구조들(Middle-Level Structures)	4
3. 복합 수준의 구조들(Complex-Level Structures)	4
C. 통시적 발전들(Diachronic Developments)	5
1. 통시적 성격(Diachronic Character)	5
2. 장애물들(Obstacles)	6
3. 새 방향(New Direction)	7
<b>III. 종말론의 발전들(Developments in Eschatology)</b> .....	<b>8</b>
A. 전통적(Traditional)	8
B. 구약(Old Testament)	9
1. 아담(Adam)	10
2. 노아(Noah)	10
3. 아브라함(Abraham)	10
4. 모세(Moses)	11
5. 다윗(David)	12
C. 초기 기독교의 종말론(Early Christian Eschatology)	14
1. 일 세기의 유대교(First-Century Judaism)	14
2. 요한과 예수님(John and Jesus)	15
<b>IV. 신약의 종말론(New Testament Eschatology)</b> .....	<b>17</b>
A. 중요성(Importance)	18
B. 기독교론(Christology)	19

1.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19
2.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20
C. 구원론(Soteriology)	21
1.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22
2.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22
<b>V. 결론(Conclusion) .....</b>	<b>24</b>
<b>VI. 연구의 길잡이(Study Guide) .....</b>	<b>37</b>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37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37

# 성경신학 개론(Building Biblical Theology)

## 제 4 강 신약 성경신학의 개관 (Contours of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 I. 서론(INTRODUCTION)

한 중고 서점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동안 읽을 헌 책을 산 친구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의 손에 있던 그 다 해진 소설이 일 주일 이상 그의 친근한 여행 벗이 되었고 그것을 도무지 내려놓 수가 없었다고. 나는 내 친구에게 그가 정말 그 책을 좋아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물론 좋아했지. 그런데 내가 마지막 장에 이를 무렵에 누군가 그 마지막 장을 찢어 없애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때 나는 몹시 실망했었네. 그것은 그 소설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알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집으로 돌아와 새 책을 사서 읽은 후이었기 때문일세.”라고 말했다. 나는 그 친구가 시간을 들여 좋은 소설을 읽어 가다가 마지막 장이 없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짐작이 간다. I have a friend who bought an old book from a used bookstore to read on a long trip. He told me that for more than a week the tattered novel in his hands was his close traveling companion; he just couldn't put it down. I told my friend that he must really have liked the book. And he replied, “Yes, I loved it, but when I turned to the last page, I found out that someone had torn out the last page.” [“] I was so disappointed,” he said, “because it wasn't till I came home and bought a new copy that I found out how the story ended.” I suppose it is dissatisfying to take the time to read a good novel only to find that the last page is missing.

많은 점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도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성경의 앞 부분들을 읽는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끝 부분인 신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소설의 마지막 장을 읽지 못한 것과 같다. 구약이 질문들, 문제들, 소망들을 일어나게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대답들, 해결들, 성취들은 성경의 끝 부분인 신약에 나온다. And in many respects, the same

kind of thing is true with the Bible. We can benefit from reading the early parts of the Bible without knowing how it ends. But if we do not also study the ending of the Bible, the New Testament, it's like never reading the last page of a novel. The Old Testament raises questions, problems, and hopes, but the answers, resolutions and fulfillments appear at the end of the Scriptures, in the New Testament.

이 강의는 **성경신학 개론**이란 강좌의 네번째 강의이다. 이 강의의 제목은 "신약 성경신학의 개관"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끝 부분 곧 신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보여주는 성경신학의 본질적인 특징들 몇 가지를 살필 것이다. This is the fourth lesson in our series, *Building Biblical Theology*. We've entitled this lesson, "Contours of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And in this lesson, we'll see some of the essential features of biblical theology toward the end of the story of Scripture, the culmination of God's revelation in the New Testament.

이 강좌를 통해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것들을 잠시 복습해 보자. 첫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석의하거나 해석할 때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했다. 그 중 문학적 분석은 성경을 어떤 신학적 관점들을 강조하기 위한 문예적 묘사로 보는 접근법이고, 주제적 분석은 성경을 우리 당대의 (혹은 전통적인) 주제들과 질문들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보는 접근법이고, 역사적 분석은 성경을 그것이 묘사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보게 하는 창으로 보는 접근법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어느 정도는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모두 사용하지만, 성경신학이란 과목은 성경의 역사적 분석에 중점을 두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에 개입하셨던 방식들을 살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 기초한 신학적 사색이다."라고 정의했다.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대한 성경의 서술에 중점을 두고 그 사건들로부터 기독교 신학을 위한 추론들을 끌어낸다. We should take a moment to review what we've seen in this series. We've noted that Christians have tended to follow three main strategies toward exegesis, or interpretation, of Scripture: literary analysis, looking at the

Bible as a literary portrait designed to emphasize certain theological perspectives; thematic analysis, looking at the Bible as a mirror that reflects our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interests and questions; and historical analysis, looking at the Bible as a window to the historical events that it describes. We always use all three of these approaches to some extent when we read the Scriptures, but the discipline of biblical theology treats the Bible primarily as a window,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alysis of Scriptures, looking especially at the ways God was involved in historical events reported in the Bible. For this reason, we defined the discipline of biblical theology in this way:

Biblical theology is theological reflection drawn from historical analysis of acts of God reported in Scripture.

Biblical theology focuses on Scriptural accounts of what God has done in history and draws inferences for Christian theology from those events.

두번째 강의와 세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신학자들이 구약을 접근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네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에 드러난 성경신학을 개관하는데 관심을 둘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성경신학이 구약과 신약을 접근하는 방식들 사이에 많은 유사점들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다. In the last two lessons of this series, we looked at the ways biblical theologians approach the Old Testament. In this lesson, we are concerned with the contours of biblical theology in the New Testament. As we will see,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ways biblical theology approaches both testaments, but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네번째 강의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주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신약 성경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곧 마지막 날들을 다루는 종말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의 발전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경신학자들이 신약의 종말론 자체를 접근해 왔는지 살필 것이다. 그럼

우리의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자. Our lesson will focus on three main issues. First, we'll gain an orientation toward our subject. Second, we'll look into the development of the Bible's teaching about eschatology, or the last days, a crucial issue in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And third, we'll explore how biblical theologians have approached New Testament eschatology itself. Let's begin with a basic orientation toward our topic.

## **II.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신약의 성경신학의 핵심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 구약의 성경신학에 관하여 배운 것과 그것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는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의 성경신학과 신약의 성경신학이 하나님의 이중 계시에 공통적인 관심을 둔다는 것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 두 성경신학이 우리가 신학 구조들이라고 불렀던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각 성경신학이 통시적 발전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이중 계시에 대하여 살펴보자. One of the best ways to get at the heart of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is to compare and contrast it with what we have learned in this series about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First, we'll look at the fact that Old Testament biblical theology and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have a mutual interest in God's twofold revelation. Second, we'll see how both disciplines have understood what we have called theological structures. And third, we'll explore how each has focused on diachronic developments. Let's look first at twofold revelation.

### **A. 이중 계시(Twofold Revelation)**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두 가지 주된 방법 곧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계시의 이러한 이중적 개념은 신약의 성경신학의 특징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신약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일 세기 교회에서의 성령의 사역 등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들을 많이 전한다. 또한 신약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처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행위들을 예언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약은 하나님의 행위와 연관된 말씀 계시들도 전한다. 신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천사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린 것도 전한다. You'll recall that God disclosed himself during the Old Testament in two main ways: through act revelations and word revelations. This twofold concept of revelation has characterized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as well. On the one hand, the New Testament reports many revelatory acts of God, such as Christ's earthly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in the first century church. It also foretells acts of God that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such as the glorious return of Christ. But on the other hand, the New Testament also reports word revelations associated with the acts of God: God the Father spoke; Christ also spoke, and at times, angels and humans, by the Spirit of God, revealed God's word as well.

이렇게 신약의 내러티브들이 예수님, 사도들, 다른 기독교인들의 행위들과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들과 말씀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약의 내러티브들에서 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종종 서신서들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들을 지적하거나 암시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This is why New Testament narratives report both the actions and words of Jesus, the apostles, and other Christians in the New Testament; because God reveals himself through their actions and their words. Not only is this true for the narrative portions of the New Testament, but it is also true for the epistles. They occasionally reference or allude to God's actions on behalf of his people and they report God's word to his people.

당신은 성경신학자들이 구약을 다룰 때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의 시간적 관계에 관심을 쏟은 것 또한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행위들에는 그 후에 후속적인 말씀 계시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행위들에는 그와 동시에 말씀 계시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행위들에는 그 전에 미리

말씀 계시가 주어지기도 했다. You'll recall that Old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also drew attention to the temporal associations of act and word revelations. Some acts of God were followed by subsequent word revelations, some were associated with simultaneous word revelations, and still others were preceded by word revelations.

성경신학자들은 신약도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말씀 계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회고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는지를 전한다. 또한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분의 동시적 행위를 설명하던 때들과 예수님께서 미래의 행위들을 예언하시던 때들도 전한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물론이고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저자들과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신약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그분의 행위들과 그분의 말씀들의 교차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 Biblical theologians have pointed out that the New Testament contains all three kinds of word revelation as well. The Gospels report how God spoke through the words of Jesus to reflect on Jesus' earlier actions. They also report times when Jesus' teachings explained his simultaneous actions, as well as times when Jesus predicted future actions. The same can be said of the authors and characters in the books of Acts and Revelation as well as the New Testament epistles.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God revealed himself through the intersections between his actions and his words.

구약을 다루는 성경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약을 다루는 성경신학자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던 이 이중적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구약의 성경신학이나 신약의 성경신학이나 모두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에 초점을 맞춘다. Like their Old Testament counterparts,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have drawn attention to the twofold manner in which God revealed himself. Old and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both focus on God's act and word revelations.

## **B. 신학 구조들(Theological Structures)**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도, 구약의 성경신학과 신약의 성경신학은 비슷한 개념의 신학 구조들을 공유한다. 당신은 구약의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가 서로 교차하는 많은 방식들에 주목함으로써 신학적 관점들을 밝힌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 사이의 논리적인 상호 연관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구조들은 매우 기본적인 수준으로부터 매우 복합적인 수준까지 배열되어 있다. 신약의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신약에 드러난 동일한 종류의 신학 구조들에 주목한다. In addition to focusing on God's act and word revelations,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share similar ideas of theological structures. You'll recall that Old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identified theological outlooks by noting the many ways God's act and word revelations intersected with each other. They paid attention to the logical interconnections between what God did and said. These structures ranged from very basic to quite complex arrangements and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have noticed the same kinds of theological structures in the New Testament.

우리는 전에 구약신학에 관하여 논의하던 패턴을 따르며 신약신학에 드러난 세 가지 수준의 신학 구조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기초 수준의 구조들의 예를 다룰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중간 수준의 구조들의 예를 다룰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복합 수준의 구조들의 예를 다룰 것이다. 그럼 먼저 신약에 드러난 기초 수준의 신학 구조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Following the pattern of our earlier discussions of Old Testament theology, we'll touch on three levels of theological structures in New Testament theology: first, an example of basic-level structures; second, an example of middle-level structures; and third, an example of complex-level structures. Let's think first of basic-level theological structures in the New Testament.

### **1. 기초 수준의 구조들(Basic-Level Structures)**

신약에서 기초 수준의 신학 구조들은 하나님의 계시들의 비교적 간단한 논리적 교차들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행위들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행위들이 그분의 말씀들의 의미를 밝혀 준다.

여러 행위 계시들 역시 논리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여러 말씀 계시들 역시 서로 교차한다. 이런 종류의 논리적 구조들이 작은 규모로 나타날 때, 그것들은 우리가 기초 수준의 신학 구조들 혹은 관점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한다. Basic theological structures appear in the New Testament through relatively simple logical intersections of divine revelations. Divine words explain acts of God; particular acts of God clarify the meanings of his words. Different act revelations also logically connect to each other; and different word revelations intersect with each other as well. When these kinds of logical structures appear on a small scale, they form what we have called basic-level theological structures or perspectives.

예를 들면, 마 2:1-12 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가 이방인 동방박사들의 언행과 어떻게 교차되는지 전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한 별에 의하여 세상에 고지되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고지하고 있는 것을 이해했고, 그 새로운 왕을 찾아서 별의 인도를 따르며 수많은 달들, 아마 2 년 정도를 보냈다. 마침내 왕이신 그 아기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에게 경배했다. 마태의 설명은 예수님 탄생의 참된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 일관된 관점 곧 이 이방인들이 경배했던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대망해 온 왕이시라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By way of illustration, in Matthew 2:1-12, Matthew reported how God's act in Jesus' birth intersected with the actions and words of the Gentile Magi. Jesus' birth was announced to the world by a star in the sky. The Magi understood that this star announced the birth of a new king, and they spent many months, perhaps as long as two years following the star in search of the new king. And when they finally reached the child, they worshiped him. Matthew's account indicated a coherent outlook on the tru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Jesus' birth: Jesus was the long awaited king of Israel whom these Gentiles worshiped.

동시에 마 2:16-18 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헤롯 왕의 언행들의 논리적인 교차를 설명하며 또 하나의 신학 구조를 만들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메시아가 언제 태어나셨는지 말했고, 헤롯의 조언자들은 그에게

어떻게 구약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는지 말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일 의도에서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부터 그 아래의 모든 사내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곧 이어 마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헤롯이 끔찍하게 죽은 것을 기록했다. At the same time, in Matthew 2:16-18, the gospel writer created another theological structure noting the logical intersections of Jesus' birth with the actions and words of King Herod. The Magi told Herod when the Messiah had been born, and his advisors told him how the Old Testament predicted the Messiah would be born in Bethlehem. In an attempt to kill Jesus, Herod ordered every male infant two years old and younger in Bethlehem to be killed. Matthew then reported Herod's horrible death under God's judgment.

이러한 행위들과 말들의 교차에 대하여 마태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또 하나의 관점 곧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대망해 온 왕이시라는 관점을 나타내는 신학 구조를 만들었다. 마태의 설명에서 이 두 세트의 신학 구조들은 서로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책에서 수차례 나오는 한 주제에 기여하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헤롯의 반응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란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왕을 환영하고 커다란 헌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분을 숭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Matthew's intersection of these acts and words created a theological structure that indicated another outlook on Jesus' birth: Jesus was the long awaited king of Israel whom Herod sought to destroy. In Matthew's account, these two sets of theological structures formed a striking contrast with each other, contributing to a theme that appears a number of times in his book. Herod's reaction to Jesus' birth foreshadowed the fact that many in Israel would reject Jesus as their Messiah and would even seek his death. By contrast, however, the Magi's reaction to Jesus' birth foreshadowed the fact that many Gentiles would welcome the promised king of the Jews and would adore him with great devotion and joy.

신약에 드러나 있는 기초 수준의 신학 구조들을 몇 개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중간 수준의 신학 구조라고 부르는 것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Having seen several basic-level theological structures in the New Testament, let's look at a few examples of what we may call middle-level theological structures.

## 2. 중간 수준의 구조들(Middle-Level Structures)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 수많은 기초 수준의 신학 구조들을 함께 볼 때, 우리는 자주 그것들이 더 크고 더 복잡한 신학적 관점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런 중간 수준의 신학 구조들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신학의 언약적 협정이다. When we broaden our view to include multiple basic-level theological structures, we often see that they form larger and more complex theological points of view.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ese moderately complex theological structures is the covenantal arrangement of New Testament theology.

예를 들어, 우리는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수집된 책들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여기 "계약"이란 단어는 "언약"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성경의 이 부분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 언약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국외 추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언했다. 사 54:10 그리고 겔 34:25 그리고 겔 37:26 은 이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불렀다. 렘 31:31 은 이 동일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다. For example, we speak of the collected books from Matthew's Gospel to John's Revelation as the "New Testament." Here the word "testament" is used synonymously with "covenant." We call this portion of the Bible the New Testament precisely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the New Covenant predicted by Old Testament prophets. Several Old Testament prophets predicted that after Israel's exile, God would establish a final covenant with the people of Israel. Isaiah 54:10 and Ezekiel 34:25 and 37:26 referred to this covenant as a "covenant of peace." Jeremiah 31:31 refers to this same covenant as "a new covenant."

새 언약과 관련된 중간 수준의 신학 구조들은 신약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신은 어떻게 구약의 언약들이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복과 저주의 결과라는 역학적 원리들의 관점에서 구약신학의 많은 부분을 체계화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이 세 가지 역학적 원리들은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을 지배하고 신약의 더 큰 세트의 많은 신학적 관점들의 논리적인 교차를 체계화했다. The middle-level theologic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the New Covenant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New Testament theology. You'll recall that we saw how covenants in the Old Testament organized much of Old Testament theology in terms of the dynamics of divine benevolence, human loyalty, and the consequences of blessings and curses. In much the same way, these dynamics governed life in the New Covenant and organized the logical intersections of many larger sets of theological perspectives in the New Testament.

### **3. 복합 수준의 구조들(Complex-Level Structures)**

모든 종류의 기초 수준과 중간 수준의 신학 구조들 외에도 신약은 다양한 복합 수준의 구조들도 제시한다. 이 강좌의 구약에 대한 강의들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약의 가장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신학 구조는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란 역사의 목표 곧 온 세상을 죄의 부패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통치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다. 신약에 드러난 이 매우 복합적인 신학적 구조에 대하여 개관해 보기로 하자. In addition to all sorts of basic and middle-level theological structures, the New Testament also presents various complex-level structures. As we might expect from our lessons on the Old Testament in this series, the most complex and comprehensive theological structure of the New Testament is the kingdom of God, the Bible's outlook on the goal of history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earth from the corruption of sin into the place of God's glorious presence and reign. Let's sketch some of the contours of this highly complex theological structure in the New Testament.

신약의 초두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설교하시고 가르치실 때 항상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사실상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빈번하게 “그 나라의 좋은 소식”이라고 불린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은 마 4:23; 9:35; 24:14(“천국 복음”)과 눅 4:43; 8:1; 16:16(“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행 8:12(“하나님 나라”) 등에서 볼 수 있다. At the beginning of the New Testament, John the Baptist and Jesus announced that the kingdom of God was near. Jesus’ preaching and teaching constantly referred to the kingdom of God. In fact, Jesus’ gospel message is most frequently calle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s we read in places like Matthew 4:23, 9:35, and 24:14, as well as Luke 4:43, 8:1, 16:16, and Acts 8:12.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은 처음부터 구약의 저자들과 똑같이 역사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형상들의 봉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를 확립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전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을 확신했다. 계 11:15 에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에 대하여 읽게 된다. Along with Old Testament writers, Jesus and the authors of the New Testament believed that from the beginning the goal of history had been for God to be glorified by establishing his reign over the whole earth through the service of his holy images. They were convinced that the work of God in Christ’s first coming began the final stage of God’s worldwide kingdom and that, in the end, the entire earth would be transformed into God’s kingdom at the return of Christ, God’s foremost holy image. We read of this hope in Revelation 11:15:

**(계 11:15)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will reign for ever and ever (Revelation 11:15).**



이번 강의에서 나중에 볼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신약신학의 모든 관점을 고려한다. 신약 전체의 일관된 체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한다는 표제 아래 요약될 수 있다. As we will see later in this lesson, the theology of God's kingdom takes into account every aspect of New Testament theology. The coherent system of the entire New Testament can be summed up under the rubric of the coming of God's kingdom to earth through Christ.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의 성경신학이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신학 구조들을 확인하는 일에 있어서 구약의 성경신학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 곧 신약의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통시적 발전을 다루어 온 방식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So we see that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is very similar to Old Testament biblical theology both in its focus on act and word revelations, and in its identification of theological structures. But despite these similarities we need to be aware of one major contrast: the ways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have handled diachronic developments.

### **C. 통시적 발전들(Diachronic Developments)**

성경신학의 이 관점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며 살펴볼 것이다. 첫번째 주제는 신약신학의 통시적 성격이고, 두번째 주제는 신약의 통시적 연구의 방해물들이고, 세번째 주제는 신약의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통시적 분석 대신에 강조해 온 새로운 방향이다. 그럼 먼저 신약의 신학적 발전들의 통시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We will look into this aspect of biblical theology by touching on three issues. First, the diachronic character of New Testament theology; second, the obstacles to diachronic study of the New Testament; and third, a new direction that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have emphasized in the place of diachronic analysis. Consider first the diachronic character of theological developments in the New Testament.

## 1. 통시적 성격(Diachronic Character)

지난 번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신학이 세월의 흐름을 따라 발전되었던 방식들에 많은 관심이 쏟아져 왔음을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행동하시거나 말씀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계시하실 때마다 그분의 새로운 계시들은 기존의 신학 구조들을 변형시켰다. In our previous lesson, we saw that muc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ways Old Testament theology developed with the passing of time. Each time God revealed more of himself by acting or speaking in history, to one degree or another, his new revelations reconfigured existing theological structures.

이와 똑같은 일이 신약의 역사에도 적용된다. 신약의 역사가 진행되며 신학 구조들은 통시적 변화를 일으켰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가 끝날 무렵에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였을 때 주어질 하나님의 복들을 바라보게 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포로로부터의 귀환과 관련된 이러한 신학적인 관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복들을 쏟아 붓기 시작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죄에 대한 영원한 용서라는 소망을 가져왔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구약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성령 강림을 가져왔다. 더 나아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할 때,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를 이방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구약의 소망은 복음 전파를 통해 현실이 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신약의 예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전혀 새로운 창조에 대한 구약의 소망들이 이루어질 날을 가리키고 있었다. The same is true for New Testament history as well. As New Testament history moved forward, theological structures underwent diachronic changes. For instance, at the close of the Old Testament period, God's word through the prophets looked forward to the blessings of God when Israel returned from exile. When Christ appeared these theological concerns with return from exile shifted toward understanding how God had begun to pour out these blessings in Christ. Christ's earthly ministry

brought the hope of eternal forgiveness of sins in his crucifixion; he secured the Old Testament hope for resurrection to new life in his resurrection; and his ascension into heaven grante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predicted by Old Testament prophets. Moreover, as the apostles continued Christ's work, the Old Testament hope of extending God's mercy to the Gentiles after the exile became a reality through the spread of the gospel. And of course, the New Testament predictions of Christ's glorious return pointed to the day when Old Testament hopes for an entirely new creation would come in Christ.

## 2. 장애물들(Obstacles)

이러한 통시적인 신학 발전들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지만, 신약의 역사는 광범위한 통시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로, 구약과 비교해서 신약은 매우 짧은 역사적 시기를 다룬다. 잠깐 구약과 신약이 차지하는 역사의 길이를 비교해 보라. 창세기 처음 열 한 장이 다루는 원시 역사 시기를 포함시키지 않고도 구약은 주전 2000 년경에 살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전 400 년경에 사역했던 마지막 선지자에 이르는 1600 년이란 기간을 다룬다. 이에 비해 신약의 역사는 매우 짧다. 신약 전체가 나타내는 것은 약 100 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신약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통시적 발전 곧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소개하고 있을지라도, 신약은 그 시기 자체 안에 중요한 통시적 발전들이 있을 만큼 충분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 Diachronic theological developments like these appear in the New Testament period, but New Testament history presents at least three major obstacles to extensive diachronic analysis. In the first place, by comparison with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covers a very short period of history. Compare the length of history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for a moment. Not including the prehistoric days of the first eleven chapters of Genesis, the Old Testament deals with over 1600 years of history extending from the time of Abraham who lived around 2000 B.C. to the last prophet who ministered around 400 B.C. By comparison, New Testament history is very short. The entire New Testament represents only around 100 years of history. Although the New Testament introduces the

most significant diachronic development so far in history — Christ’s earthly ministry — it simply does not cover enough history for there to have been major diachronic developments within that period itself.

둘째로, 신약에 있었던 대부분의 상황들은 서로 매우 비슷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약은 그 역사에서 매우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준다.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에서 준 유목민 가족이었다. 그 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 그 후 그들은 사사 시대 동안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이 나라를 제국적 웅대함을 갖게 만들었을 때 그들의 상황은 다시 변했다. 그리고 후대 왕들과 지도자들이 순종과 반역 사이를 오갔을 때 그들의 상황은 다시 변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외로 추방하셨을 때 그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그리고 포로 생활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들의 상황은 개선되었다. In the second place, most situations in the New Testament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By contrast the Old Testament presents a great variety of circumstances in its history. In the patriarchal period, God’s people were a semi-nomadic family in Canaan. Then they were slaves in Egypt. Next they became a new nation under Moses’ leadership. After that, they conquered Canaan during the period of the Judges. Their circumstances changed again when Israel’s early monarchy moved the nation toward imperial splendor, and again when later kings and leaders vacillated between obedience and rebellion. Their situation worsened when God sent them into in exile. And it improved when he finally began to restore the kingdom through those who returned to the Promised Land from exile.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조정하시며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 이스라엘의 상황들에 대한 이러한 통시적인 조정은 구약의 신학적 발전들에 있어서 커다란 다양성을 가져왔다. As God’s people went through these various circumstances, he acted and spoke to them in ways that were appropriate for their situations, accommodating

himself to their needs. These diachronic accommodations to Israel's circumstances produced great variety in the theological developments of the Old Testament.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신약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들은 크게 변한 것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상황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 사도들, 교회는 여러 상황들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루었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러한 차이들에 따라 조정되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역사 내내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종류의 극심한 변화를 겪지 않았다. 신약에서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내버려지고 박해를 받았다. 그들은 엄청난 부와 끔찍한 가난의 시기들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집단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규모가 큰 순종과 불순종의 시기들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로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들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들처럼 폭넓게 다양한 상황들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안정성으로 인해 신약신학에서 통시적 발전들은 그 중요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By comparison, however, the circumstances of God's people were fairly consistent during New Testament history. To be sure, situations did not remain precisely the same. Jesus, the apostles, and the church dealt with different kinds of people in different circumstances and God's revelation accommodated those differences. Yet, throughout this period of history, early Christians did not face the kinds of extreme changes that took place with God's people in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Christians were consistently marginalized and persecuted. They didn't experience periods of tremendous wealth and horrible poverty. They didn't travel *en masse* from one place to another. Nor did they experience periods of wide-scale obedience and disobedience. As a result, God's revelations recorded in the New Testament did not accommodate as wide a variety of circumstances as his revelations in the Old Testament. And this stability has made diachronic developments less significant in New Testament theology.

셋째로, 구약과 달리 신약은 한 가지 하나님 언약만을 다룬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언약들은 신학에 있어서 주된 시대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 결과로 역사가 이러한 언약 시기들을 거쳐서 진행될 때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 변화가 일어났다. In the third place, unlike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deals with only one divine covenant. As we have seen, covenants in the Old Testament signaled major epochal shifts in theology. The covenants with Adam, Noah, Abraham, Moses and David we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as a result, very significant theological changes occurred as history moved through each of these covenant periods.

이와 대조적으로 신약은 단 한 가지 언약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나타낸다. 이 언약은 신약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교회의 역사로 들어설 때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 전체 기간의 역사는 오직 한 가지 언약과 연관된 역학적 원리들(하나님의 은택과 인간의 충성 그리고 복과 저주의 결과)에 의해 특징지어졌다. 신약에 많은 언약들이 없는 것도 역시 신약에서의 통시적 발전들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By contrast, the New Testament only represents one covenant, the New Covenant in Christ. This covenant began to unfold as New Testament history moved from Christ's first coming and into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this entire range of history was characterized by the dynamics of divine benevolence, human loyalty and the consequences of blessings and curses of just one covenant. The absence of multiple covenants in the New Testament also diminished the significance of diachronic developments in the New Testament.

### **3. 새 방향(New Direction)**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 통시적 변화들은 구약에서의 변화들 만큼 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약의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렸다. 그들은 구분된 여러 역사적 시기들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신약 역사의 모든 기간을 하나로 묶어 전체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여왔다. Because diachronic changes in New Testament history were not as dramatic as changes in the Old Testament,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have shifted their attention in a new direction. Instead of focusing on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they have tended to treat the entire period of New Testament history as a whole.

우리가 말한 대로 신약에도 통시적 발전들이 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교회의 역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사이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다. 그렇더라도 신약은 이러한 발전들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단일한 그림의 일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고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만 다루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분의 재림을 바라보기도 한다. 요한 계시록은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을 다룰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승천 후의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기도 한다. Now, as we have said there are diachronic developments in the New Testament.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between Jesus' earthly ministry,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the return of Christ in glory. Even so, it's fair to say that the New Testament tends to treat these developments as a unified whole, as part of a single picture of Christ and his work. For example, the Gospels not only tell us about Jesus' life, but also refer many times to the ongoing ministry of the church after Jesus' departure and also to his return in glory. The book of Acts and the epistles do not simply deal with events after Jesus' ministry, but also refer back to Jesus' lifetime and look forward to his return. The book of Revelation not only deals with Jesus' future return, but also looks back to his life and the history of the church after his departure.

신약의 짧은 역사, 변함없는 상황들, 단일한 언약에 의해 조성된 신학적 통일성으로 인해 신약에 대한 광범위한 통시적 연구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그들의 관심의 대부분을 새로운 방향으로 옮겼다. 그들은 신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의 역사를 작은 단위들로 나누는 대신에 여러 신약 저자들이 전체 시기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제공한 방식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The theological unity created by the New

Testament's brief history, uniform circumstances, and single covenant makes it difficult to do extensive diachronic study. So, biblical theologians have shifted the majority of their attention in a new direction. Instead of dividing the history of God's New Testament act and word revelations into small segments, they have focused on the ways different New Testament authors provided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entire period.

실제로 신약은 우리에게 이 기간의 전체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 평가들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생애라는 한 역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책들은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매우 다른 관점들을 제공한다. 그들은 네 가지 다른 신학적 관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사도행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의 서신서들, 히브리서와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그 책들 모두가 신약 계시의 전체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약의 이 부분들도 서로 모순되지 않지만, 그것들은 다른 신학적 어휘들, 범주들, 강조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In fact, the New Testament provides us with many different theological assessments of the whole history of this period. Consider for instance, that the one history of Jesus' life is described in four different ways by four gospel writers: Matthew, Mark, Luke and John. Although the gospel writers did not contradict each other, their books offer very different outlooks on the historical events of Christ's life. They represent four different theological perspectives. The same can be said of the book of Acts; the epistles of Paul, Peter, James, John, and Jude; as well as the books of Hebrews and Revelation. They all present varying theological perspectives on the whole of New Testament revelation. These portions of the New Testament do not contradict each other, but they display different theological vocabularies, categories, and emphases.

이런 이유로 신약의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들의 과목을 매우 유익한 것으로 판명된 방향으로 인도해 왔다. 그들은 신약의 여러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는 역사 시기에 대한 독특한 신학적 이해를 제공하는 방식들을 비교해 왔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들은 이렇다. 바울은 신약의 역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누가와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들은 무엇인가? 이런 방향의 연구를 통해 신약의 성경신학자들은 중요한 통찰들을 많이 얻게 되었다. For this reason,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have taken their discipline in a direction that has proven to be very fruitful. They have compared the ways different New Testament authors offered distinctive theological understandings of the historical period stretching from Christ's life to his return. They ask questions like: How did Paul interpret the mighty acts of God in New Testament history? How did Luke and John do this? What were their differences? What views did they hold in common? This direction has led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to many important insights.

지금까지 신약의 성경신학의 개관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번 강의의 두번째 주된 주제인, 종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다루는 종말론의 발전들을 살필 것이다. 우리가 곧 볼 것이지만 성경신학자들이 신약의 신학을 연구하는데 종말론보다 더 중심적인 주제는 없다. 그러나 성경신학이 이토록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신약의 종말에 대한 관점들이 어떻게 그 이전의 관점들로부터 발전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Now that we have a general orientation toward the contours of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we should turn to our second main topic in this lesson, developments in eschatology, the biblical teaching about the last days. As we will see, no other subject is as central to the ways biblical theologians have approached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But to understand why biblical theology has had this emphasis, we must grasp how the New Testament's outlooks on the last days developed out of earlier viewpoints.

### **III. 종말론의 발전들(DEVELOPMENTS IN ESCHATOLOGY)**

우리는 세 가지 측면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전통적인 종말론 곧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이 다루어진 방식들을 살핌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둘째로, 마지막 날들에 대한 구약의 견해들의 발전을 보기 위해 구약의 종말론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초기 신약 시대의 종말론에 대한 관점들을 조사할 것이다. 그럼 먼저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의 종말론을 살펴보자. We will look in three directions. First, we'll set the stage by touching on traditional eschatology, the ways this topic has been approached in systematic theology. Second, we'll look into Old Testament eschatology to see the developments of Old Testament views on the last days. And third, we will examine outlooks on eschatology in early New Testament times. Let's begin with a look at eschatology in traditional systematic theology.

## A. 전통적(Traditional)

“종말론”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최후,” “끝”을 의미하는 헬라어 형용사 [에스카토스]에서 유래되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52 번 정도 나오고, 구약에 대한 고대 헬라어 역본인 칠십인역에 여러 번 나온다. 신약에서 [에스카토스]라는 용어는 적어도 15 번은 “마지막 날들” “마지막 일들” “마지막 때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마지막 날들, 마지막 일들, 마지막 때들에 관한 교리”를 의미하는 전문적인 신학 용어이다. The term “eschatology” derives from the Greek adjective *eschatos* which usually means the “last,” “final” or “end.” The word appears some fifty-two times in the New Testament as well as many times in the Septuagint, the ancient Greek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the term *eschatos* refers at least fifteen times to the “last days,” “final things” or “end times.” And so, eschatology is a theological technical term meaning “the doctrine of the last days, final things or end times.”

여러 세기 동안 종말론은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범주들 가운데 하나를 차지해 왔다.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5 가지 중요한 범주 곧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나누어 논의해 왔다. 조직신학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요한 신앙고백들과 신조들에서도 종말론은 주로 미래,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Through the centuries, eschatology has been a major category of traditional systematic theology. Systematicians have normally discussed the teachings of Scripture in five major categories: theology proper, anthropology, soteriology, ecclesiology and finally eschatology. In systematic theology, as well as in a number of significant confessions and creeds, eschatology has usually been the last major topic because it has focused primarily on the future, specifically the events associated with the return of Christ.

여러 세기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마지막 때의 어떤 관점들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해 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몸의 부활, 불신자들은 정죄받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받게 하는 마지막 심판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철저히 의견의 일치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넘어서면, 종말론에 대한 전통적인 토론들은 신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구분이 일어나게 했다.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할 것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20 장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천년왕국의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 세기 동안 진지한 신자들은 다양한 해석학적 입장을 취해 왔다. 요한계시록 20 장은 문자적인 천년을 가리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징조들이 천년왕국보다 먼저 있을 것인가?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는가? 박식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대답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즉시로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은 종말론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따라 왔다. Now, through the centuries, most Christians have realized that the Bible is very clear about certain aspects of the end times. They have heartily agreed on some basic issues like Christ's glorious retur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final judgment resulting in condemnation for the lost and everlasting life for those who are in Christ. But beyond these basic teachings, traditional discussions of eschatology have led to sharp divisions among believers. Take, for example, the issue of the millennium that centers on the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20, John's prediction of Christ's 1000-year reign on earth. Sincere

believers through the centuries have taken a variety of interpretive positions: Does this chapter refer to a literal 1000-year reign, or not? Will it be preceded by certain identifiable signs? Has it already begun? Well-informed followers of Christ have answered these questions in different ways. They have followed multiple orientations toward eschatology because the biblical teaching on matters like these is not immediately clear.

신약의 성경신학이 전도유망한 약속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이다. 성경신학자들은 전통적인 토론들의 내용을 넘어서는 방식들로 종말론을 접근해 왔다. 그들은 새로운 전략들을 도입해 왔고, 종말론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들에 새로운 통찰력을 불어넣었다. 이로 인해 모든 종말론적 입장을 배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더 깊은 의견의 일치로 보게 되었다. It is here that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holds great promise. Biblical theologians have approached eschatology in ways that cut across the grain of traditional debates. They have introduced new strategies and they have brought fresh insights to traditional understandings of eschatology. And this has led many Christians of all eschatological orientations into deeper unity with each other.

신약의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전통적인 접근법들을 넘어서는 방식들로 종말을 이해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구약의 종말론이란 배경 지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To understand how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have understood the last days in ways that have moved beyond traditional approaches, we need to become familiar with the background of Old Testament eschatology.

## **B. 구약(Old Testament)**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 줄곧 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신학의 발전들이 일어나게 하셨다. 성경이 마지막 일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을 다루는 종말론도 이러한 통시적 발전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들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도 역시 세월의 흐름을 따라 의미심장한 발전을 했다. 구약에서의 이러한 통시적 발전들은 신약의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약에서 종말론에 대하여 발견해 온 것을 위한 무대를 제공한다.

As we have seen throughout this series, when God disclosed himself through act and word revelations, he caused developments in theology. Eschatology,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last things, was not immune from such diachronic developments. Just as with other subjects, the Old Testament's teachings about the last days also developed in significant ways over time. These diachronic developments in the Old Testament set the stage for what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have discovered about eschatology in the New Testament as well.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종말론이 이 강좌를 통해 우리가 공부한 바 있는 구약의 주요 언약적 경영들을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문제를 간단히 다룰 것이다. 아담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연대순으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언약들의 각 시기는 구약의 종말론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했다. In this section, we will briefly touch on how eschatology developed alongside the major covenant administrations of the Old Testament we have studied in this series. Beginning with the covenant with Adam we will follow chronologically through Noah, Abraham, Moses, and David. Each of these stages contributed essential elements to the eschatology of the Old Testament.

### **1. 아담(Adam)**

성경 역사의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종말론의 매우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계시하셨다. 이 중 첫째 요소는 창조 자체에 암시되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일하며 땅을 채우고 정복하도록 부름받았다. 창조의 이러한 관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대한 그분의 목표가 온 땅으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 장소가 되게 하는 것임을 계시하셨다. At the very beginning of biblical history, God revealed two crucial elements of Old Testament eschatology. The first of these is implicit in the creation itself. Humanity was created in God's image. And we were called to work as his royal priests, filling the earth and subduing it. Through these aspects of the

creation, God revealed that his goal for history was for the whole earth to be a place where his glory would dwell with his people.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은 구약 종말론의 매우 중요한 두번째 요소 곧 이 시점으로부터 세상의 지배를 위해 다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계시하셨다. 창 3:15 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세상의 지배를 위해 싸울 것임을 계시하고 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인 반면, 뱀의 후손은 사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종말의 때까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를 위해 전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가 궁극적으로 그분 자신과 여자의 신실한 후손에게 있을 것임을 약속하셨다. With Adam and Eve's sin, and the curse that fell on them, God revealed the second crucial element of Old Testament eschatology: From this point forward there would be two groups of people competing for control of the world. Genesis 3:15 reveals that the seed of the woman and the seed of the serpent will fight for control of the world. The seed of the woman are those who remain faithful to God, while the seed of the serpent are those who follow the ways of Satan. Until the end of time, these two groups will war for control of the world. But God promised that victory will ultimately belong to himself and to the faithful seed of the woman.

아담 시대에 소개된 두 가지 요소를 보았으므로, 이제 노아 언약을 살펴보자. Having seen the two elements introduced during the time of Adam, let's turn our attention to Noah's covenant.

## 2. 노아(Noah)

창세기 7 장에 묘사된 세계적인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은 자연계의 안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할 때 멸절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창 8:22 에서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 계절들과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한 '여자의 후손'에게 그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자연 환경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 타락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던 땅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상, 노아 언약을 통하여 주어진 안정은 역사의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언약적 협정이 인계받을 것이다. Following the worldwide flood in Genesis 7, God made a covenant with Noah. This covenant secured the stability of nature so that humanity would not have to fear annihilation as they pursued God's plan for the world. In Genesis 8:22, God said that the seasons, day, and night would continue "as long as the earth endures." By this promise, he assured the faithful 'seed of the woman' that they would have the natural environment necessary to achieve God's goal for them. The ground that had been cursed through the fall would not prevail against them. And in fact, the stability granted through Noah's covenant would continue until the goal of history had been reached. At this point, a new covenantal arrangement for nature would take over.

아담과 노아와 맺은 우주적 언약의 시대 동안 주어진 역사의 목표에 관한 기본적인 비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적 언약을 맺으신 최초의 인물인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났던 구약 종말론의 중요한 통시적 발전을 살펴보자. Having seen the basic vision of history's end given during the universal covenants with Adam and Noah, we should turn to the major diachronic development of Old Testament eschatology that took place in the days of Abraham, the first one with whom God made a national covenant.

### **3. 아브라함(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 15 장과 17 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주제들은 훨씬 더 일찍 창 12:1-3 에 소개되어 있다. 창 12:1-3 에 의하면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발하여 아담과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할 사람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에 주어진 복들은 그들을 통하여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게 중개되어야만 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소명을 이루는데 소규모적인 성공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구약의 종말론은 좁혀져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역사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God's covenant with Abraham is recorded in Genesis 15 and 17. But the themes of that covenant are introduced even earlier in Genesis 12:1-3. In those verses God singled out Abraham, from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to be the one through whom he would carry out his promises given to Adam and Noah. The blessings given to Abraham and his family were to be mediated to the rest of the world through them. In fact, God promised Israel success, on a small scale, in fulfilling the call given to Adam and Eve in the Garden. Therefore, the eschatology of the Old Testament narrows to a focus on Abraham and his family. The end goal of history would be brought to the whole world through them.

#### 4. 모세(Moses)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두번째 언약인 모세 언약을 살펴보자. 모세 시대에 구약의 종말론은 한층 더 발전했다. 모세 언약 아래 일어난 종말론의 통시적 발전들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두 단계로 나누어 먼저 국외 추방이란 저주를 다루고 그 다음으로 국외 추방으로부터의 회복이란 복을 다룰 것이다. Now we are in a position to look at the second covenant God made with Israel, the covenant with Moses. In the days of Moses, Old Testament eschatology developed even further. The diachronic developments of eschatology under the covenant of Moses are rather complex. So, we'll examine them in two steps: first, the curse of exile; and second, the blessings of restoration from exile.

우리가 보았던 대로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왕국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담당할 특별한 봉사를 위한 지침인 하나님의 율법에 중점을 두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면 많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었다. 사실상 여러 구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길로부터 떠날 것을 예견했다. 그는 그들에게 불순종에 따른 많은 심각한 결과들을 경고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파렴치게 위반하는 것에 대한 그의 가장 큰 경고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모세가 신 4:27-28 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라. As we have



seen, Moses' covenant focused on the law of God as the guide for Israel's special service in spreading his worldwide kingdom. The Israelites were offered many blessings if they would obey the law, but were also threatened with many curses if they turned from the Law of Moses. In fact, in a number of passages Moses anticipated that future generations of Israel would turn from the ways of God. He warned them of many severe consequences of disobedience, but his greatest threat against continuing, flagrant violation of God's law was a national exile from the Promised Land. Listen to the way Moses put it in Deuteronomy 4:27-28:

**(신 4:27-28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The Lord will scatter you among the peoples, and only a few of you will survive among the nations to which the Lord will drive you. There you will worship man-made gods of wood and stone, which cannot see or hear or eat or smell (Deuteronomy 4:27-28).**

국외 추방의 경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끔찍한 장래의 전망이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 국외 추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효를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할 것이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소명을 성취하는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었다. The threat of Israel's exile was not just a terrible prospect for the Israelites, but for the entire human race. Remember that from the time of Abraham, God's goal for history was to be achieved through Israel. An exile would greatly decrease the

numbers of Israelites and would remove them from the land, thus making the promises to Abraham and the call to Adam and Eve much harder to fulfill.

국외 추방의 부정적인 부산물을 염두에 두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국외 추방으로부터의 회복이란 주제를 살펴보자. 다행스럽게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외 추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신 4:30-31 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실하게 순종하면 그들을 용납하시고 본토로 돌아오도록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 30:5 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 회복에서 그들이 그 이전 보다 더 많아지고 더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다. With the negative ramifications of exile in mind, we should turn to the theme of restoration from exile that God promised through Moses. Happily, Moses made it clear that despite Israel's future exile, God would not give up on Israel as his special people. In Deuteronomy 4:30-31, God promised that when Israel repented of its sins and turned back to God in faithful obedience, he would hear them and restore them to the land. Even more than this, in Deuteronomy 30:5 God promised in this restoration to make them more numerous and prosperous than ever before.

모세의 종말론의 핵심적인 특징 한 가지는 그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본토로 귀환하는 때를 묘사하는 방식이다. 신 4:30 에서 모세가 말한 것을 들어보라. One key feature of Moses' eschatology is the way he described this time of Israel's repentance and restoration to the land. Listen to what he said in Deuteronomy 4:30.

**(신 4:30)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When you are in distress and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to you, then in later days you will return to the Lord your God and obey him (Deuteronomy 4:30).**

여기에 기록된 모세의 진술이 구약의 종말론의 통시적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가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번역된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어구는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칠십인역에서 [에스카토스]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국외 추방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본토로 돌아오는 때를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모세가 여기에 선택한 단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저자들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마지막 날들(말일, 말세),” “나중의 날들(후일),” 곧 “종말 [에스카톤]”으로 묘사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국외추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귀환은 종말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Moses' statement here is crucial to the diachronic development of Old Testament eschatology because Moses used the terminology, translated here “the later days.” This phrase is translated in the Septuagint, the Greek Old Testament, by the term *eschatos* and it characterizes the time of Israel's glorious return from exile. Moses' choice of words here became the basis upon which Old Testament prophets and New Testament authors described the last stage of world history as “the last days,” “the latter days,” or the “*eschaton*.” From this point forward, the return of Israel from exil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Bible's teaching about eschatology.

## 5. 다윗(David)

이제 다윗 언약 시대에 일어났던 종말론의 발전들을 살펴보자. 이 시기에 있었던 발전들도 역시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 단계 곧 통일 왕국 시기와 이스라엘의 전기 선지자들의 시기와 이스라엘의 후기 선지자들의 시기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들이 종말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자. Now we are in a position to turn to the developments of eschatology that emerged during the period of David's covenant. Developments in this period were relatively complex as well. So we'll explore them in three steps: first, the days of the united monarchy; second, the time of Israel's earlier prophets; and third, the days of Israel's later prophets. Consider first how God's revelations transformed eschatology in the time of Israel's united monarchy.

이 강좌를 통해 본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특히 다윗 가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조가 되도록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언약에서 다윗의 후손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이해를 포함한 신학 전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시점으로부터 역사의 목표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다윗 왕조의 성공과 결부되어 있었다. 사실상 우리는 시 72:8-11 에서 다윗의 미래의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본다. As we have seen in this series, God's covenant with David focused especially on the establishment of David's family as Israel's permanent dynasty. In this covenant, David's descendants and Jerusalem with its temple played a central role in all of Israel's theology, including its understanding of the end times. From this point forward, the end of history was attached to the success of David's royal house ruling from Jerusalem. In fact in Psalm 72:8-11 we find that a future son of David will rule over the entire earth.

(시 72:8-11) 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자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띠끌을 핥을 것입니다. 다시스와 머나먼 섬들의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바칠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에게 절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He will rul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desert tribes will bow before him and his enemies will lick the dust. The kings of Tarshish and of distant shores will bring tribute to him; the kings of Sheba and Seba will present him gifts. All kings will bow down to him and all nations will serve him (Psalm 72:8-11).**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비전은 시 72:17-19 에 다음과 같이 한층 더 확대되어 있다. And this vision of the future is expanded further in Psalm 72:17-19.

(시 72:17-19) 그의 이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고, 해가 있는 한 지속되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받기를 바라고,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고 부르길 바랍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May his name endure forever; may it continue as long as the sun.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him, and they will call him blessed. Praise be to the Lord God, the God of Israel, who alone does marvelous deeds. Praise be to his glorious name forever; may the whole earth be filled with his glory. Amen and Amen (Psalm 72:17-19).

이 시점으로부터 역사의 목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다윗 왕조의 성공과 결부되어 있었다. From this point forward the end of history was attached to the success of David's royal house ruling from Jerusalem over the entire world.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전기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살펴보자. 이스라엘의 전기 선지자들은 다윗의 왕정 언약 안에서 모세 언약의 역학적 원리들을 적용했다. 그들은 다윗 왕조의 상황들이 어떻게 마지막 날들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했다. 전기 선지자들은 다윗의 불신실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파렴치한 위반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과 하나님께서 곧 온 백성을 국외로 추방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전 587(혹은 586)년에 함락되었을 때 사실이 되었다. Now we should move to the words of Israel's early prophets. Israel's earlier prophets applied the dynamics of Moses' covenant within David's royal covenant. They explained even further how the conditions of David's house would relate to the last days. Early prophets warned David's unfaithful sons

that God would not tolerate flagrant violations of his law, and that God was about to send the entire nation into exile. These threats were ultimately fulfilled with the fall of Jerusalem to the Babylonians in 587 or 586 B.C.

그러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이스라엘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전기 선지자들은 모세가 말일의 기이한 일들과 이스라엘의 국외 추방으로부터의 귀환을 연관시킨 것도 상기시켰다. 그 선지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있을 회복에 있어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 새로운 질서의 초점이 될 것을 선언했다. 암 9:11-12 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였는지 들어보라. Yet, to assure Israel that all hope had not been lost, Israel's earlier prophets also recalled Moses' connection between the wonders of the last days and Israel's return from exile. The prophets declared that in the restoration from exile, a great son of David, in his capital city of Jerusalem, would become the focus of a new order. Listen to how the prophet Amos put it in Amos 9:11-12:

**(암 9:11-12 개역개정)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In that day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tent. I will repair its broken places, restore its ruins, and build it as it used to be, so that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and all the nations that bear my name (Amos 9:11-12).**

이와 비슷한 취지로 이사야는 사 2:2 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였다. Along these same lines Isaiah wrote these words in Isaiah 2:2:

**(사 2:2 개역개정)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In the last days the mountain of the Lord's**

**temple will be established as chief among the mountains; it will be raised above the hills, and all nations will stream to it (Isaiah 2:2).**

아모스는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 결과로 땅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지니게 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말일에,” 바꾸어 말하면, 포로기 이후의 날에 예루살렘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가 되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러 그곳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했다. 포로기 이후에 있을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높은 희망을 생각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포로기가 단지 칠십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시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렘 25:11 과 29:10 에서 예레미야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의 심판의 시간에 관하여 말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70 년의 포로 생활에 대하여 말했다. 예레미야와 다른 전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마지막 날에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이 누리는 전 세계적인 영광이 있을 것임을 자주 선언했다. Amos announced that David's “tent” would be restored so that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ould bear the name of the Lord, and Isaiah said that “in the last days,” in other words the days after the exile, Jerusalem would become the greatest city on earth and the peoples of all nations would stream to her for salvation. With such high hopes in the glory of David’s house and Jerusalem after exile, it is no wonder that the prophet Jeremiah assured Israel that the time of exile would last for only seventy years. In Jeremiah 25:11 and 29:10, the prophet spoke of seventy years of exile — a customary way in the ancient world of speaking of a time of divine judgment. Jeremiah and other earlier prophets frequently announced that in the last days, when God’s people returned from exile, there would be worldwide glory for David’s house and Jerusalem.

이스라엘의 전기 선지자들의 사역에 입각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후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종말론의 훨씬 더 큰 통시적 발전들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구약의 종말에 대한 개념에 적어도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으로 포로기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되었다. 다니엘은 다니엘 9 장에서 그가 포로기 동안 예레미야의 포로 생활 70 년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었지만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음을 보고하였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다니엘 9 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때에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기는 7 배 더 길게 연장되어 70 이레(70 년이 7 번이나 더 지나는 때)가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레위기 26 장에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7 배나 더 큰 저주로서 반응하실 것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 490 년 동안 미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uilding upon the ministries of Israel's earlier prophets, God revealed even further diachronic developments in eschatology through his later prophets. God's involvement in history brought about at least two major shifts to the Old Testament concept of the last days. On the one side, the time of exile was extended because the Israelites in exile did not repent of their sins. In Daniel 9, Daniel reported that during the exile he was reading Jeremiah's prophecies of seventy years of exile, but he felt compelled to confess that the Israelites in exile had not yet repented of their sins. Yet, he still asked God to return Israel to the land and to restore Jerusalem. As we read later in Daniel 9, the angel Gabriel delivered God's answer to Daniel. Israel's exile would not end when Jeremiah had said. Because God's people had failed to repent, the exile would be extended seven times longer, to seventy weeks of years. As God had established as early as Leviticus 26, he would respond to continuing sin with curses seven times greater. Put simply, Daniel learned that God had postponed Israel's glorious restoration for approximately 490 years.



다른 한편으로 후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의 포로 생활을 짧게 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도 밝히 말했다. 주전 539 년에 하나님은 뜻밖의 방식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정복하는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어 그들이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다. 이 때에 적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On the other side, later prophets also revealed that God showed great mercy to his people by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shorten their exile. In 539 B.C. God fulfilled his word through Jeremiah in an unexpected way. He caused the conquering Persian emperor, Cyrus, to release Israel to rebuild the temple of God in Jerusalem. At this time a small number of Israelites returned to the Promised Land under the leadership of Zerubbabel, a descendant of David.

역대기의 저자 뿐만 아니라 선지자 학개와 스가라는 이 적은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때까지 귀환 공동체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율법을 무도하게 무시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이 알게 되었던 것과 매우 비슷하게 선지자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종말론적 소망들의 시작이 먼 미래의 시점으로 연기된 것을 선언했다. 구약은 이렇게 종말론적 시대의 비참한 연기로 끝나고 있다.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as well as the author of Chronicles, encouraged this small group of returnees to move forward in the blessings of God by rebuilding Jerusalem. But sadly, by the time of Ezra and Nehemiah, the restored community had flagrantly disregarded God's law once again. So, the prophet Malachi declared that the beginning of Israel's glorious eschatological hopes were postponed to a time in the distant future, much like Daniel had learned before him. The Old Testament ends with this sad postponement of the eschatological age.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종말론이 통시적으로 발전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담의 시대에 씨앗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노아의 시대에 조금 더 세밀해졌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세상의 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게 하시는 수단이었다. 모세는 이 소망을 이스라엘이 국외 추방으로부터 영광스럽게 귀환하는 것과 연관시켰다. 다윗 언약은 그의 왕조와 예루살렘을 국외 추방 이후에 있을 이 영광스러운 날들의 중심에 서게 하였다. 적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본토로 돌아 왔을 때 짧은 기간 소망이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역은 구약으로 하여금 **종말**의 소망이 먼 미래로 지연되는 것으로 끝나게 만들었다. So we see that Old Testament eschatology developed diachronically. It began in seminal form in the days of Adam and was refined further in the days of Noah. In Abraham's time, Israel's blessing to the world became the means by which God would bring history to its ultimate end. Moses connected this hope with Israel's glorious return from exile. The covenant with David set his dynasty and Jerusalem at the center of these glorious last days after exile. And although there was a brief period of hope when a number of Israelites returned to the land from Babylon, Israel's continuing rebellion caused the Old Testament to end with the hope of the *eschaton* postponed to the distant future.

구약 안에 드러난 종말론의 통시적 발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날들에 대한 교리가 신약 시대에 한층 더 발전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With the diachronic developments of eschatology within the Old Testament in mind, we're now in a position to see how the doctrine of the last days developed even further in New Testament times.

### **C. 초기 기독교의 종말론(Early Christian Eschatology)**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는 대부분의 일 세기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견해들이고, 둘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난 종말론의 극적인 개정이다. We'll touch on two issues: First, the outlooks on the last days held by most first century Jews; and second, the dramatic revision of eschatology in the ministries of John the Baptist and Jesus.

#### **1. 일 세기의 유대교(First-Century Judaism)**

일 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종말론과 비슷한 견해들을 갖고 있었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세기 동안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 고난을 당했다. 바벨론인들,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수백년 동안 연장시켰다. The vast majority of Jews in Palestine in the first century held to views of the last days that resembled those of the Old Testament. As the prophet Daniel had predicted, Israel had suffered under the tyranny of Gentiles for centuries. The Babylonians, the Medes and the Persians, the Greeks, and finally the Romans extended Israel's exile for hundreds of years.

이 여러 세기 동안 내내 신실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될 구약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갈망했다. 많은 랍비들이 이 소망을 이중적 역사관을 통해 표현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들의 현재 상황을 "이 시대"라고 언급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 확장되며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오랜 포로 생활의 낮은 지점까지 이르렀다. 선에 대한 악의 명백한 승리로 인해 그들은 이 시대를 대개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이 시대는 실패, 슬픔, 죽음의 시대였다. Throughout these centuries, faithful Jews longed to see the fulfillment of Old Testament hopes of the restoration and glory for Israel in the last days. Many rabbis expressed this hope in a twofold view of history. On the one hand, they referred to their current circumstances as "this age." This age extended through the ups and downs of Israel's history, to the low point of Jerusalem's destruction and Israel's lengthy exile. The apparent victory of evil over good caused them to characterize this age in largely negative terms. It was a time of failure, sorrow and death.

다른 한편으로 많은 랍비들은 역사의 두번째 시대 곧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의 영광의 시대에 관하여 말했다. 그들은 이 미래의 시대를 "올 시대"라고 불렀다. 역사상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복과 악에 대한 승리가 결코 그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포로 생활 중인 모든 백성을 모으시고, 이스라엘 안에 불신실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나라들 중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과 그곳의 왕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들을 땅 끝까지 확장하실 것이다. On the other hand, many rabbis also spoke of a second period of history, the time of future glory for Israel. They called this future period "the age to come." This time in history would be a never-ending age of Israel's blessing and triumph over evil. At that time, God would gather all of his exiled people, judge the unfaithful in Israel, judge the wicked among the nations, glorify Jerusalem and her king, and spread the blessings of Abraham to the ends of the earth.

예수님의 생애 이전의 수십년과 예수님의 생애 동안 팔레스타인에는 많은 종교적 분파가 있었다. 이 분파들은 이 시대로부터 올 시대로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었다. 묵시적(apocalyptic) 분파들은 **종말**이 하나님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역사 개입을 통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자주 열심파(zealot)이라고 불리는 다른 그룹들은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자들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대항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를 보게 될 때 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중시자(nomist)라고 불리는 분파들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 신실한 것으로 판명날 때에만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During the decades prior to and during Jesus' lifetime, there were many religious factions among the Jews in Palestine. These factions held different views on how the transition from this age to the age to come would take place. Apocalyptic sects believed that the *eschaton* would come through an abrupt, catastrophic divine intervention. Others groups, often called Zealots, believed that the age to come would arise as Jews rose up militarily against their Roman rulers and saw God's support for their efforts. Parties called Nomists, like the Pharisees and Sadducees, held that the last days would come only when Israel proved to be faithful to the law of Moses.

이 시대가 올 시대로 전환되는 정확한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을지라도, 아무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일이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위대한 자손 곧 메시아의 출현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메시아는 세계의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 곧 세상이 어둠에서 빛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악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최종적인 전환을 가져 오실 것이다. Although there was much disagreement over the precise way this age would transition into the age to come, in one way or another most Jews believed that it would take place with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e great son of David promised in the Old Testament. The Messiah would bring about the decisive turning point in world history, the final transition from a world of darkness to light, a world of defeat to victory, a world of evil to righteousness, a world of death to life.

일 세기의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던 견해들이 구약의 가르침과 대부분 일치할지라도, 종말론의 매우 중요한 통시적 발전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일어났다. Although the views commonly held by Jews in the first century by and large accorded with the teachings of the Old Testament, major diachronic developments in eschatology took place through divine revelation in the ministries of John the Baptist and Jesus.

## **2. 요한과 예수님(John and Jesus)**

요한 복음과 마가 복음에 기록된 역사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한다. 막 1:15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The history recorded in the gospels of John and Mark begins with John the Baptist preaching that the arrival of the last days was near. As we read in Mark 1:15:

**(막 1:15)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Mark 1:15).**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구는 구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나라에 대한 요한의 선포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들” 곧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끝이라고 부르던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연관시킨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사야가 사 52:7-10 에서 포로기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라. The phrase “kingdom of God” does not appear in the Old Testament, but John’s announcement of the kingdom drew from an association between God’s reign, and what Moses and the prophets called “the last days,” or the end of Israel’s exile. Listen to the way Isaiah referred to the reign of God after the exile in Isaiah 52:7-10:

**(사 52:7-10)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소리로다. 네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인다. 그들이 일제히 기뻐하며 외친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이 눈과 눈을 마주하며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 . .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실 것이고 땅의 모든 끝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Your God reigns!” Listen! Your watchmen lift up their voices; together they shout for joy. When the Lord returns to Zion, they will see it with their own eyes...The Lord will lay bare his holy arm in the sight of all the nation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see the salvation of our God (Isaiah 52:7-10).**

이사야는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미지로 묘사했다. 예루살렘의 폐허에 선포된 복된 소식은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마지막 날에 회복시키실 때 그분이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우상들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Isaiah described the return from exile with an image of God leading his people back to Jerusalem. The good news declared to the ruins of Jerusalem was “Your God reigns.” In effect, Isaiah announced that when God restores his people in the last days, he will demonstrate that he reigns victoriously over all the nations and their idols.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당대에 유대인들과 매우 비슷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역사의 마지막 단계, 곧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재빠르고 결정적인 행동을 보이시며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한한 복을 내리시는 메시아를 통해 도래할 것을 믿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눅 3:9 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라. In one sense, John the Baptist held to a view of the last days that was very similar to his Jewish contemporaries. He believed that the last stage of history, God's kingdom on earth, would come through the Messiah acting quickly and decisively, exercising judgment against sinners and pouring out enormous blessings on God's repentant people. Listen to the way he put it in Luke 3:9:

**(눅 3:9)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The axe is already at the root of the trees, and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Luke 3:9).**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도 연결한 점이다. We see here that John the Baptist associated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not only with blessings for God's people but also judgment against the enemies of God.

그렇지라도 종말에 대한 세례 요한의 견해는 매우 중요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의 당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다윗의 위대한 자손인 메시아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복들과 심판에 관한 충분한 과시가 없는 채로 전개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우리는 눅 7:20 에서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를 보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한 것을 읽는다. Even so, John the Baptist's view of the last days represented a very significant

development. He moved beyond his Jewish contemporaries by identifying Jesus as the Messiah, the great son of David who was about to bring the Kingdom of God of the last days. But John the Baptist had a problem. As Jesus' ministry unfolded without a full display of judgment as well as blessings, John wondered if Jesus was in fact the Messiah. In Luke 7:20 we read that John the Baptist sent two of his disciples to Jesus with a question:

**(눅 7:20) 세례 요한이 저희를 당신께 보내며 “당신이 오시기로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쭙어 보라고 했습니다. John the Baptist sent us to you to ask,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Luke 7:20).**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과 일세기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행하실 것이라고 선언했던 모든 일을 다 행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이다. It's no wonder that John asked this question. Jesus had not done all the Old Testament, first century Jews and John himself had announced that the Messiah would do.

그러나 눅 7:22-23 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들어보라. But now listen to the way Jesus responded to John the Baptist in Luke 7:22-23:

**(눅 7:22-23 개역개정)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he blind receive sight, the lame walk, those who have leprosy are cure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and the good news is preached to the poor.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on account of me (Luke 7:22-23).**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포로기 이후 마지막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여러 예언들을 암시했다. 이러한 일들을 언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한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가 바로 그분 자신이 종말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확인하셨다. In this passage, Jesus alluded to a number of prophecies from Isaiah about the restoration of Israel in the last days after exile. By referring to these things, he affirmed the fact that the act and word revelations of his ministry demonstrated that he was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Old Testament prophecies of the last days.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는 경고도 주셨다. 예수님은 그분이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계시는 방식 때문에 요한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 요컨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들을 충분히 성취하고 있으므로 너는 그 나머지 모든 것도 내가 성취할 것이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번 강의의 용어를 사용해서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통시적 발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셨다. 종말에 대한 구약의 관점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말라기까지 매우 극적인 방식들을 통해 변화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들은 종말론에 대한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But Jesus also warned John the Baptist and everyone else not to “fall away on account of” him. Jesus encouraged John not to lose hope because of the *way* he was fulfilling God’s kingdom of the last days. In a word, Jesus told John the Baptist, “I have fulfilled enough end-time expectations of God’s kingdom for you to believe that I will fulfill the rest.” To put it in the terms of this lesson, Jesus’ words alluded to a major diachronic development that was taking place. The Old Testament perspective on the last days transformed in dramatic ways from the days of Adam to Malachi. And in the same way, God’s revelations through Jesus were bringing yet another transformation of eschatology.

예수님께서서는 다가 올 시대가 기대된 만큼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다. 그 대신 종말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성취될 것이다. 마태복음 13-25 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 단계를 거쳐 도래할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작은 규모로 시작되어 정해지지 않은 일정 기간 동안 커지다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이르러서야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종말에 있을 어떤 복들과 심판과 더불어 올 시대를 열 것이다. 올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며 그분의 교회가 성장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이 시대와 나란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올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절정에 이르고 그 때 죄와 사망의 이 시대는 끝날 것이다. Jesus declared that the age to come was not going to appear suddenly as had been expected. Instead, the *eschaton* would be fulfilled over a long stretch of time. In a number of his kingdom parables in Matthew 13–25, Jesus explained that the kingdom of God would come in three phases. It would begin with his first coming in a small way, grow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and reach its fullness only when he returned in glory. Jesus' earthly ministry would inaugurate the age to come with some blessings and judgments of the last days. The age to come would continue alongside this age for a period of time as Christ reigned in heaven and his church grew. And then 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the age to come would reach its consummation and this age of sin and death would come to an end.

성경신학자들은 자주 이러한 종말론의 발전을 매우 다양하게 설명한다. 그들은 그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 "지금 그러나 아직," "시대의 중첩" 등으로 묘사한다. 때때로 그들은 그것을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말한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그것이 나타내는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Biblical theologians often refer to this development of eschatology in a number of ways. They describe it as the "already, but not yet," the "now, but not yet," and the "overlap of the ages." Sometimes they speak of it simply as "inaugurated eschatology." Whatever the terminology, the basic idea is the same.

구약의 선지자들, 일 세기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세레 요한조차도 마지막 날의 도래를 단 하나의 역사적 단계로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로의 전환을 역사의 마지막 단계로 보셨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유추를 생각해 보라. 우리 모두는 사람의 정상적인 한 걸음이 하나의 동작 곧 단 하나의 걸음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다 자세히 보면 그것이 적어도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알아 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한 걸음은 당신의 발을 땅에서 드는 것과 공중으로 뻗는 것과 땅으로 내려 놓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아주 비슷하게 예수님은 마지막 날 곧 종말이 증대되는 방식으로 올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종말이 그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일정 기간 계속 진전되다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마침내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Old Testament prophets, first century Jews, and even John the Baptist thought of the arrival of the last days more or less as a single historical step. Jesus also viewed the transition to the last days as the last step of history, but consider this analogy: We all know that a normal human step can be seen as one motion, a single step. But if we look at it more closely, it isn't difficult to see that it can be divided into at least three phases: lifting your foot from the ground, extending it through the air and lowering your foot to the ground. In much the same way, Jesus explained that the last days or the *eschaton* would come incrementally. He announced that it was inaugurated at his first coming, that it would continue growing for a period of time, and it would finally reach its consummation at his glorious return.

이제 성경의 종말론이 아담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발전되어 온 방식들을 염두에 두고서, 성경신학자들이 신약에 드러난 종말론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자. With the ways biblical eschatology developed from the time of Adam to the time of Jesus in mind, we're in a position to see how biblical theologians have approached eschatology in the New Testament.

#### **IV. 신약의 종말론(NEW TESTAMENT ESCHATOLOGY)**

그리스도의 현재 제자들인 우리는 현대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다. 우리 모두는 신약 저자들의 배경과 매우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왔다.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신약 저자들이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생각했던 방식들을 지배하던 세계관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 이것이 성경신학의 큰 장점들의 하나이다. 성경신학은 신약 저자들이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때 자주 설명했던 기본적인 관점들을 조명해 주었다. As modern followers of Christ, we entered the Christian faith with a modern cultural background. We all came to Christ with views of life that are very different from the backgrounds of New Testament writers. And because of these differences, we often have to work very hard to grasp the mindset, the worldview that governed the ways New Testament authors conceived of their faith. This is one of the great advantages of biblical theology. It has brought to light some of the basic outlooks to which New Testament authors referred over and over as they expressed their Christian faith.

성경신학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신약에 드러난 종말론의 중요성을 다룰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종말의 완성이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곧 기독교론을 탐구할 것이다. 셋째로, 신약의 구원론 곧 구원에 관한 교리가 종말론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신약에 드러난 종말론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To grasp how biblical theology has approached these matters, we'll look at three issues. First, we'll touch on the importance of eschatology in the New Testament. Second, we'll explore the New Testament concept of Christ, or Christology, as the fulfillment of the *eschaton*. And third, we'll see how New Testament soteriology, the doctrine of salvation, was shaped by eschatology. Let's look first at the importance of eschatology.

## **A. 중요성(Importance)**

처음에는 과장하여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삼 단계 종말론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었으므로 우리는 신약의 모든 페이지에서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신약이 종말론 이외의 다른 많은 이론적인 문제들과 실천적인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신약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삼 단계 관점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Although it may sound like an overstatement at first, Jesus' three-phase eschatology was so prominent in the hearts of early Christians that we find it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on every page of the New Testament. Of course, we know the New Testament touches on many other theoretical and practical subjects. But biblical theologians have demonstrated that in one way or another every New Testament teaching was shaped by Jesus' three-phase view of the last days.

여러 세대 동안 팔레스타인에 사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마지막 날들 곧 승리와 구원과 영생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을 갈망했었다. 누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 유대인이었다. 누가를 포함한 저자들은 각각 유대인 신학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그 결과로 메시아가 도래시킬 종말에 대한 유대 신학적 관심은 신약 저자들의 기본적인 신학의 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For generations the vast majority of Jews in Palestine had yearned for the Messiah to usher in the last days — the age of victory, salvation and eternal life. With the probable exception of Luke, every New Testament writer was Jewish. And each one of them, including Luke, had deeply engaged Jewish theology. As a result, the Jewish theological concern with the Messianic last days contributed in significant ways to the basic theological framework of New Testament writers.

신약에 있어서 종말론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일 세기 유대교와 결별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식을 대표하였기 때문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유대 군중들은 메시아가 도래시킬 종말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때문에 기독교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기독교인들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지만 기대되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오셨다고 믿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손에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메시아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거기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메시아는 어느 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과 정반대였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삼 단계 종말론에 골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몰입은 그들이 쓴 모든 것에 반영되어 있다. Eschatology wa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New Testament because Jesus' teaching about the last days represented one of the most decisive ways in which Christians had broken with first century Judaism.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the general Jewish population raged against Christianity precisely because of the Christian outlook on the Messianic last days. Christians believed that the Messiah had already come, but in a way that was unexpected. He had suffered and died at the hands of Jews and Gentiles; he had been resurrected and had ascended into heaven where he ruled over all; and he would return one day to judge all of humanity, including unbelievers within Israel. Such a messianic scenario was utterly contrary to what most Jews believed in that day. And for these reasons, New Testament authors were deeply preoccupied with Jesus' three-phase eschatology. And this preoccupation is reflected in everything they wrote.

종말론이 신약 저자들에게 얼마나 널리 퍼져있었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그들이 신약 시대 전체를 "마지막 날들, 종말"이라고 말했던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첫째로,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를 "마지막 날들, 말세" 곧 "종말"이라고 불렀다. 히 1:1-2 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 One simple way to see how pervasive eschatology was to New Testament authors is to notice that they spoke of the entire New Testament period as "the last days." First, New Testament authors called the days of Jesus and his apostles, "the last days" or *eschaton* as we can see in Hebrews 1:1-2.

**(히 1:1-2)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옛적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In the past**

**God spoke to our forefathers through the prophets at many times and in various ways,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whom he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and through whom he made the universe (Hebrews 1:1-2).**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독자들의 시대를 “마지막 날”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마지막 날이라고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어떤 미래의 때를 가리킬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킬 의도로 한 것이다. 예수님에 의한 그 나라의 개시와 더불어 구약에 약속된 마지막 날들은 지상에 임했던 것이다. Here the author of Hebrews referred to the time of his readers as the “last days.” In doing so he did not mean to point to some future time right before Jesus returns, but to the fact that through Jesus, God had spoken finally and definitively. With Jesus’ inauguration of the kingdom, the promised last days of the Old Testament had come to the earth.

둘째로, 신약의 저자들은 확장된 교회의 시대를 마지막 날이라고 불렀다. 딤후 3:1-5 과 같은 구절들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 Second, New Testament writers designated the extended period of church history as the last days in places like 2 Timothy 3:1-5:

(딤후 3:1-5 개역개정)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마지막 날에, 종말에, 말일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But mark this: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ful, proud, abusive, disobedient to parents, ungrateful, unholy, without love, unforgiving, slanderous, without self-control, brutal, not lovers of the good, treacherous, rash, conceited, 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 —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2 Timothy 3:1-5).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 날”에 저지를 것으로 말한 일련의 죄들은 모두 바울 당시에 저질러 지고 있었던 죄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그 죄들에 대하여 경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죄들은 교회 역사 동안 내내 계속 되며 우리의 시대에서도 저질러 지고 있다. 바울이 어떤 미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그의 권면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 날, 말세”의 악한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은 “마지막 날, 말세”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세상에 도래되었기 때문이었다. This list of sins that Paul said would be committed in the “last days” were all sins that were occurring in Paul’s day, and he warned Timothy about those sins. But these are sins that also continue to occur throughout history even to our present day. That Paul wasn’t referring to some future time can be seen in his exhortation to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The wicked people of the “last days” were a threat to Timothy because the “last days” had already come to the world through Jesus.

셋째로,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묘사했다. 요 6:39 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 Third, New Testament authors described the consummation of the kingdom at Christ’s return as “the last days.” We can see this in John 6:39: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John 6:39).**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마지막 날”은 궁극적인 최후의 날 곧 그분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가리킨다. Here Jesus taught his disciples about his relationship to the Father. His reference to the “last day” points forward to the ultimate final day when he returns in glory, when the dead will rise and God will judge the world.

이와 같은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계시들이 마지막 날(종말, 말세)에 일어나는 것으로 믿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삼 단계 종말론의 틀 안에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된다. As these and other passages demonstrate, New Testament writers believed that all revelations from God from the time of Jesus’ earthly ministry until his return in glory took place in the last days. Their teachings could only be understood and followed correctly within the framework of Jesus’ three-phase eschatology.

## **B. 기독교론(Christology)**

이제 우리는 신약의 기독교론 곧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소망들의 성취로 제시하는지 살필 것이다. 이 주제는 두 단계로 다루어질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조직신학이 기독교론이란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신학자들이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조직신학에서의 기독교론을 살펴보자. Now we are in a position to see how New Testament Christology, or the doctrine of Christ, presents Jesus as the fulfillment of Israel’s eschatological hopes. We will look at this topic in two steps. First, we’ll touch on the ways systematic theology has dealt with the topic of Christology.

And second we'll see how biblical theologians have understood this subject. Let's look first at Christology in systematic theology.

### **1. 조직신학(Systemic Theology)**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 기독교론은 교회 역사의 어떤 시기들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던 주제들에 집중해 왔다. 예를 들면, 조직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들과 갖는 관계,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양성의 본질적 연합,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의 상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등과 같은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신약은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들은 계속해서 오늘의 교회에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In traditional systematic theology, Christology has concentrated on themes that were of critical concern at certain periods in church history. For example, systematicians focused on issues like the relation of Christ to the other persons of the Trinity, the hypostatic union of Christ's two natures in his one person, the states of Christ's humiliation and exaltation, the nature of his atonement, and the three offices of Christ as prophet, priest and king. Without a doubt, the New Testament addresses these and similar matters, and they continue to be important topics for the church even today.

그러나 성경신학자들은 기독교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 그들의 강조는 신약의 저자들이 일차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약의 소망의 모든 측면이 그 안에서 성취되는 분으로 제시한 사실에 있다. But biblical theologians have taken Christology in a different direction. They have stressed that New Testament authors primarily presented Christ as the one in whom every facet of Old Testament hope found fulfillment.

### **2.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성경신학자들은 구약의 해석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예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났던 때를 자주 지적한다. 눅 24:26-27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Biblical theologians often point to the time when Jesus met two of his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Chris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Luke 24:26-27 we read these words,

**(눅 24:26-27)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하고 그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서] 곧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관해 쓰여진 일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다. Did not the Christ have to suffer these things and then enter his glory?” And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Jesus] explained to them what was said in all the Scriptures concerning himself (Luke 24:26-27).**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이 자신에 관하여 언급하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사실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곧 구약 전체를 가리키시며 그들에게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해 언급된 것”을 보여주셨다. 때때로 성경신학은 신약의 저자들이 여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며 예수님 자신을 구약 종말론의 성취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Notice here that Jesus explained how the Old Testament spoke of him. He referred his disciples to “Moses and all the Prophets,” to the entire Old Testament, and showed them “what was said in all the Scriptures concerning himself.” Time and again, biblical theology has pointed out that New Testament authors follow Jesus’ example here by treating himself as the fulfillment of Old Testament eschatology.

신약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하신 많은 방식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관점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약의 종말론적 소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이야말로 신약의 종말론의 핵심이었다. The New Testament points out many ways in which Jesus fulfilled prophecies about the last days, but the fulfillment of prophecy does not adequately express the New Testament outlook on Christ. Instead,

we have to understand that New Testament eschatological hope was concentrated in the person of Jesus. Jesus was the centerpiece of New Testament eschatology.

잠시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구약의 모형론에 대하여 논의했던 것을 기억해 보라. 구약 역사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목적들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일어났다. 그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은 역사의 끝에 완전히 실현될 것의 예비적 표시, 그림자, 모형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종말을 도래시킬 통로로 사용하실 메시아이므로,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모형들의 성취라고 말했다. Recall for a moment our discussion of Old Testament typology in the previous lesson. At every stage of Old Testament history, key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appeared in ways that indicated the goals toward which God was moving history. They were preliminary displays, foreshadows, or types of what would be fully realized at the end of history. For this reason, because Jesus was the Christ, the Messiah through whom God brought the *eschaton*, New Testament authors spoke of Christ as the fulfillment of all Old Testament types.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역사의 최초 시기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세상이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종말에 온 세상을 다스릴 인간 통치를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목적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것을 단번에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질 것임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종말에 이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시어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율법에 대한 계시를 주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종말에

일어나게 하신다. 이것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구약의 소망들의 성취로 본 방식을 예시하는 몇 개의 예에 불과하다. To mention just a few examples, at the earliest stages of history God moved the world toward its final goal by calling Adam to rule over the world as the royal priest of God's kingdom; Jesus completes humanity's rule over the world in the last days as the great king and high priest. God ordained Noah to rescue humanity from God's judgment to further God's kingdom purposes; Jesus does this once and for all in the *eschaton*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God promised Abraham that his descendants would bring God's blessings to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Jesus finally brings this about in the last days through the spread of the gospel. God raised up Moses to give Israel the revelation of his law; Jesus reveals God's final word in the *eschaton*. God told David that his dynasty would conquer God's enemies and rule over the world on God's behalf; Jesus makes this happen in the last days. These are but a few examples that illustrate how New Testament writers saw Jesus as the fulfillment of Old Testament hopes.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신약이 설명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소망들을 성취하는 일이 삼 단계 곧 하나님 나라의 개시, 지속, 완성이라는 삼 단계를 거쳐 일어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신약의 저자들은 자주 예수님께서 구약의 소망들을 성취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에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분의 지상 사역에서 먼저 아담의 통치 소명을 성취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지금 온 세상에 대한 그분의 통치를 확장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이다. Now we must remember that Jesus and the New Testament explain that his fulfillment of Old Testament expectations would take place in three phases: the inauguration, continu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kingdom. Because of this, New Testament writers often drew attention to different ways in which Jesus fulfills Old Testament hopes. For example, Jesus began to fulfill Adam's call to rule first in his earthly ministry. He continues to extend his reign over the world now. And he will

rule over every inch of creation, making all things new, when he returns in glory.

예수님은 그분의 지상 사역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을 섬길 인류에 대한 노아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과 세례로 초청하는 일을 통하여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Jesus fulfilled Noah's rescue of humanity for service to God in his earthly ministry as he called men and women to repent and ordered his disciples to baptize them. He continues to do this as the church calls people around the world to salvation and baptism. And Jesus will ultimately deliver from divine judgment when he returns for the masses of humanity who have faithfully followed him.

예수님은 온 세상의 복이 되라는 아브라함의 소명도 역시 성취하셨다. 첫째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복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든 족속과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로 채우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이 측면을 완성하실 것이다. Jesus also fulfilled Abraham's call to be a blessing to the entire world. First, he and his disciples reached out to Gentiles. Second, he continues to do this now by bringing the blessings of salvation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And third, he will complete this aspect of God's kingdom when he fills the new creation with redeemed people from every tribe and nation.

예수님은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시인하고 새로운 계시를 전할 때 모세의 율법의 인도도 역시 성취하셨다. 그분의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인도는 그분의 성령이 교회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들을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완전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갖게 될 것이다. Jesus also fulfilled the guidance of Moses'

law as he and his disciples affirmed God's law and brought new revelation. Jesus' guidance of his people continues now as his Spirit equips the church to spread biblical teachings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when Christ returns, every person in the new creation will have the law of God written perfectly on their hearts.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승리와 우주적 통치에 대한 약속도 역시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먼저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사탄을 정복하심으로써 이 일을 행하셨다. 그분의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위대한 자손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이다. Finally, Jesus also fulfilled the promise of victory and global rule for the house of David. He did this first by conquering Satan through hi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His church continues to spread Christ's spiritual victory over the world through the gospel. And when Christ returns, he will judge all of God's enemies and rule over the entire creation as the great son of David.

이러한 예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소망들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던 많은 구체적인 방식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종말의 삼 단계에서 구약의 종말론의 모든 소망이 온전히 실현되게 하신다. These examples provide a framework from within which we can grasp many specific ways New Testament authors focused on Christ as the fulfillment of Old Testament hopes. Christ personally brings to full realization every hope of Old Testament eschatology in the three phases of the last days.

### **C. 구원론(Soteriology)**

성경신학자들은 자주 구원에 관한 교리 곧 구원론을 새로운 방식들로 이해해 왔다.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주제를 살필 때 먼저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의 구원론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구원론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조직신학에서의 구원론을 숙고해보자. Biblical theologians have often

understood the doctrine of salvation or soteriology in new ways. To see what we mean, we'll look at this topic first by touching on soteriology in traditional systematic theology. And then we'll see how this doctrine has been treated in biblical theology. Consider first soteriology in systematic theology.

## 1.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면, 전통적인 조직신학자들은 구원론을 두 개의 기본적인 범주 곧 구원의 역사(*historia salutis* [히스토리아 샬루티스])와 구원의 서정(*ordo salutis* [오르도 샬루티스])으로 나누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역사에서 구원을 성취하셨던 방식들을 가리킨다. 구원의 서정은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구원의 주관적 적용을 가리킨다. In broad terms, traditional systematic theologians have divided the doctrine of salvation into two basic categories: *historia salutis*, or the history of salvation, and *ordo salutis*, or the order of salvation. The history of salvation refers to the ways God accomplished salvation in objective history. The order of salvation refers to the subjective application of salvation to individual people.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성취[히스토리아 샬루티스]는 다소 좁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 성취하신 것의 전부(골자)로 정의된다. 많은 관심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쏟아져 왔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최근 수십 년동안 더 많은 관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쏟아져 왔다. 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조직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천상 즉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 통치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종말론의 표제 아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고려 사항들을 제외하고 조직신학자들은 구원의 객관적인 성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In systematic theology, the accomplishment of salvation, or *historia salutis*, has been rather narrowly defined as the sum of what God accomplished in the earthly ministry of Christ.



Muc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atonement of Christ. For whom did Christ die? Why did he die for us? What did his death accomplish? In recent decades mor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Why did Christ rise from the dead? What does his new life have to do with our salvation? Systematic theologians also speak of Christ's ascension and enthronement in heaven, and how his present reign affects those who believe in him. And they also speak of the return of Christ in glory under the rubric of eschatology. But apart from these main considerations, systematic theologians have not devoted much attention to the objective accomplishment of salvation.

그 대신 조직신학자들은 그들의 관심의 대부분을 구원의 적용[오르도 살루티스]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집중은 어떻게 구원이 각 개인의 삶에 적용되느냐는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루었다. 오늘날에도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성화, 영화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대개 구원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측면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회의 거의 모든 분파에서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로서 중생은 구원이 처음으로 개인들에게 적용될 때 그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탄생을 가리킨다. 회심은 사람이 죄로부터 떠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믿음은 개인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칭의는 오직 믿음이란 수단을 통하여 얻은, 개인에게 전가된 의로움에 대한(개인을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다. 성화라는 용어는 대개 거룩함에 있어서 개인이 성숙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영화는 개인에게 적용된 구원의 완성 곧 영생의 상급이다. Instead, systematicians have concentrated most of their attention on the application of salvation, or the *ordo salutis*. This emphasis has set the course for most Christians by emphasizing how salvation is to be applied to the lives of individual people. Even today when we use terms like regeneration, repentance, faith,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we usually have in mind specific aspects of the application of salvation to individuals. In the theological vocabulary of nearly every branch of the church, regeneration

refers to the new birth that people experience as salvation is initially applied to them. Repentance is a person's turning away from sin and toward Christ. Faith is an individual's trust and reliance on God's grace in Christ for salvation. Justification is God's forensic declaration of a person's imputed righteousness received through the instrument of faith alone. The term sanctification usually indicates an individual's growth in holiness. And glorification is the complete application of salvation to a person, the reward of eternal life.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의 이와 같은 측면들이 논의되는 방식들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신약의 성경신학은 구원의 교리를 다른 유리한 관점 곧 그리스도의 삼 단계 종말론으로부터 유래된 관점들에서 보아왔다. Many of us are familiar with the ways these and other aspects of soteriology are discussed in systematic theology. But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has looked at the doctrine of salvation from a different vantage point: perspectives that are derived from Jesus' three-phase eschatology.

## 2.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조직신학자들과 대조적으로, 성경신학자들은 구원의 성취[히스토리아 살루티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신약에서 개개인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 항상 예수님의 종말론의 삼 단계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적 성취라는 틀 안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By contrast with systematic theologians, biblical theologians have focused much more on the accomplishment of salvation, the *historia salutis*. They have shown that in the New Testament the application of salvation to individuals is always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hree phases of Jesus' eschatology, the historical accomplishment of salvation in him.

신약의 구원론을 연극 무대의 장치라고 상상해 보라. 성경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는 무대의 배경을 형성한다. 이 무대 배경은 종말의 개시, 지속, 완성을 나타내는 세 개의 큰 구획을 갖는다. 개인의 삶에 구원을 적용하는 것은 무대 전면에서 있는 등장인물의 행동과 같다. 신약의 저자들은 마치 그들이 청중석에 있는 세 개의 다른 좌석에서 무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 개인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했다. 그들은 개인의 구원 경험을 종말의 개시, 지속, 완성을 나타내는 세계의 배경 구획에 비추어 이해했다. Imagine New Testament soteriology as the set on a theatrical stage. From the outlook of biblical theology, the accomplishment of salvation in Christ forms the backdrop of the stage. This backdrop has three large panels representing the inauguration, continu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last days. The application of salvation to an individual life is like the actions of a character standing near the foreground of the stage. New Testament authors described what happens when salvation comes to an individual, as if they were looking at the stage from three different seats in the audience. They view a person's experience of salvation against the three background panels representing the inauguration, continu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last days.

첫번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개시 기간 동안 성취하셨던 것과 연합된 것에 그들의 구원을 의존한다. 두번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종말이 지속되는 동안 성취하고 계시는 것과 연합된 것에 의해 그들의 평생 동안 내내 구원을 체험한다. 그리고 세번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종말이 완성될 때 성취하실 것과 연합될 때 구원을 체험할 것이다. From the first vantage point, a follower of Christ rests his or her salvation on being joined to what Christ accomplished during the inauguration of the last days. From the second vantage point, a follower of Christ experiences salvation through his or her lifetime by being joined to what Christ is accomplishing during the continuation of the last days. And from the third vantage point, followers of Christ will experience salvation when they are joined to what Christ will accomplish at the consummation of the last days.

대체로 이것이 신약의 저자들이 구원의 성취를 구원의 적용과 관련시키는 방식임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구원이란 용어를 세 가지 기본적인 방식으로 사용했다. 때때로 그는 첫번째 관점에서 구원을 이미 일어난 것으로 말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롬 8:24 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For the most part, it's easy to see that this is the

way New Testament authors related the accomplishment of salvation to the application of salvation. For example, the apostle Paul used the term salvation in three basic ways. Sometimes he spoke of it from the first vantage point as something that had already occurred. For instance, we read these words in Romans 8:24:

**(롬 8:24) 이는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For in this hope we were saved (Romans 8:24).**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2000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던 것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중생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과거의 구원 경험에 대하여 말했다. Here Paul spoke of our past experience of being regenerated by the Holy Spirit and set on a new course of life because we were joined to what Christ accomplished 2000 years ago.

때때로 바울은 두번째 관점에서 구원을 신자들의 경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전 1:18 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At other times, Paul spoke of salvation from the second vantage point as a current, ongoing reality in the experience of believers. As he put it in 1 Corinthians 1:18,

**(고전 1:18) 이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1 Corinthians 1:18).**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개시될 때 행하셨던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지금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Here Paul spoke of

our daily ongoing salvation in Christ, which is certainly based on what Christ did in the inauguration of the kingdom, but it's also closely tied to our union with him in his heavenly ministry now.

때때로 바울은 세번째 관점에서 구원을 미래의 일 곧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했다. 롬 5:9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t other times, Paul spoke of salvation from the third vantage point as something that was still future, something that was still to occur at Christ's return. As he said in Romans 5:9:

**(롬 5:9)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다. Since we have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how much more shall we be saved from God's wrath through him! (Romans 5:9).**

한 가지 특이한 예를 생각해 보라.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는 보통 "영화"라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용어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개개인에게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성경신학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단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때 일어날 일로만 제한하면 신약에 있는 영화라는 개념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예를 들어 바울은 영화에 관하여 쓸 때 종말의 삼 단계를 모두 고려했다. 첫째로, 그는 영화를 신자들에게 이미 일어났던 것으로 말했다. 롬 8:29-30 에 그가 쓴 것을 들어보라. Consider just one striking example. The last facet of the *ordo salutis* is commonly known as "glorification." We normally use this term as a reference to what happens to individuals when Christ returns. But biblical theologians have noted that we truncate the concept of glorification in the New Testament, if we limit it simply to what happens at the consummation of Christ's return. For example, Paul wrote of glorification in terms of all three phases of the last days. In the first place, he spoke of it as something that has already happened to believers. Listen to what he wrote in Romans 8:29-30:

(롬 8:29-30 개역개정)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an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an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Romans 8:29-30).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에독싸쎌]인데 이 동사의 어형은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나타낸다. 그리스도 안에서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드러난 그분의 영화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분과 함께 어느 정도의 영화를 이미 받았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The verb translated “glorified” is *edoxasen* and this form of the verb indicates an event that had already taken place. Because individuals in Christ are joined to Christ’s glorification in his resurrection and ascension, they have already received with him a measure of glorification. Believers have already been glorified in Christ.

이것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영화가 신실한 신자들에게 지속적인 현실인 사실도 알려 주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는 매일의 경험도 역시 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이 고후 2:18 에서 그 자신과 그의 동료들에 대하여 표현한 것을 들어보라. In addition to this, Paul also indicated that glorification is an ongoing reality for faithful believers. The daily experience of living in union with Christ can also be spoken of as glorification. As Paul put it about himself and his company in 2 Corinthians 3:18:

(고후 3:18 개역개정)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And we, who with unveiled faces all reflect the Lord's glory,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with ever-increasing glory, which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2 Corinthians 3:18).

NIV 에 “점점 더 큰 영광에”라고 번역된 어구는 [아포 독세스 에이스 독싼]인데 개역개정처럼 보다 문자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라고 번역될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인의 삶이 신자가 점점 더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 phrase translated “with ever increasing glory” is *apo doxēs eis doxan* which may more literally be translated, “from glory to glory”. Here the apostle Paul made the point that the Christian life of service to Christ is an increasing glorification of the believer.

말할 필요도 없지만 바울은 또한 영화를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말했다. 조직신학자들과 아주 비슷하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궁극적인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딤후 2:10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And of course, Paul spoke of glorification as something that happens in the future. Much like systematic theologians, Paul understood that followers of Christ will receive ultimate glory when Christ returns. As we read in 2 Timothy 2:10:

(딤후 2:10)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있는 것은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는 것이다. Therefore I endure everything for the sake of the elect, that they too may obtain the salvation that is in Christ Jesus, with eternal glory (2 Timothy 2:10).

이와 매우 흡사하게 성경신학자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종말론의 삼 단계의 관점에서 매우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삼중의 방식으로 구원론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음을 지적해 왔다. In much the same way, biblical theologians have indicated that New Testament authors thought so much in terms of the three phases of Jesus' eschatology that they treated every aspect of soteriology in this threefold manner.

## V. 결론(CONCLUSION)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의 성경신학에 대한 개관을 소개했다. 우리는 신약의 성경신학을 구약의 성경신학과 비교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낳은 발전들에 있어서 신약신학의 선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삼 단계 종말론을 모든 신약신학을 지배하는 틀로서 다루어 왔는지를 탐구했다. In this lesson we have introduced the contours of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We have gained an orientation toward this discipline by comparing it with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We have seen the precursor of New Testament theology in the developments that led to Jesus' teaching about the last days. And we have explored how biblical theologians have treated Jesus' three-phase eschatology as a governing framework for all New Testament theology.

신약의 성경신학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이미 성취된 것에 비추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has helped us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the teachings of Jesus and his apostles in many different ways. But above all else, biblical theology has shown us how we are to live for



Christ in the light of what he has already accomplished in his first coming, how we are to live for Christ in the power of his Spirit within us now, and how we are to live for Christ in the hope of his glorious return.

## **VI. 연구의 길잡이(Study Guide)**

### **A. 복습을 위한 질문들(Review Questions)**

1. 어떻게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라는 이중 개념이 신약의 성경신학의 특색을 이루고 있는지 설명하라. Explain how the twofold concept of act and word revelation has characterized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2. 신약에 있는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신학 구조를 묘사하고 각각의 예를 들라. Describe the three different levels of structure in the New Testament and give an example for each.
3. 통시적 발전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신약의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구약의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In what ways do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differ from Old Testament biblical theologians in regard to the way they handle diachronic developments?
4.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종말론은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What is eschatology and how has this subject traditionally been approached by systematic theologians?
5. 구약의 종말론에 대한 정보에 익숙해 지는 것은 신약의 종말론에 있는 통시적 발전들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How does becoming familiar with the background of Old Testament

eschatology help us understand diachronic developments in New Testament eschatology?

6. 일 세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종말”에 대하여 어떤 견해들을 갖고 있었는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견해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What outlooks on the “last days” were held by most first-century Jews, and what effect did the ministries of John the Baptist and Jesus have on these views?
7. 왜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삼 단계 종말론에 몰입했는가? 어떻게 이 삼 단계 종말론이 일 세기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결정적인 단절을 대표하는가? Why were New Testament authors so preoccupied with Jesus’ three-phase eschatology? How does this three-phase eschatology represent a decisive break between first-century Judaism and Christianity?
8.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에 관하여 조직신학자들과 성경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들은 어떻게 다른가? What is Christology and how do systematic theologians and biblical theologians differ in their emphases regarding this discipline?
9. 구원론을 설명하라. 구원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어떻게 성경신학자들은 구원론을 새로운 방식들로 이해해 왔는가? Explain the doctrine of soteriology. What is the traditional view of soteriology, and how have biblical theologians understood soteriology in new ways?

## **B. 적용을 위한 질문들(Application Questions)**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당신이 당신의 사역을 하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당신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How does your understanding of

the kingdom of God shape the way you do your ministry? In what ways might your ministry change by applying the concept of God's kingdom to all aspects of life?

2. 이 강의는 신약의 여러 저자들이 그리스도와 신약의 전체 시기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신약의 저자들이 서로 상반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차이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This lesson suggests that different New Testament authors provided different perspectives on Christ and the entire New Testament era. How do we explain these differences to those who claim that the authors of the New Testament contradicted each other?
3. 신약의 종말론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방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How can understanding the eschatology of the New Testament improve the way you preach or lead Bible studies?
4.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어떻게 현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승리들을 기대하게 해주는가? 이런 승리들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How does the fact that we are living in the continuation of an inaugurated kingdom cause us to expect victories for God's kingdom in the present time? What would those victories look like?
5.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가? How does the fact that we have not yet reached the consummation of the kingdom of God help us deal with the suffering that we still experience in our lives?

6. 우리가 종말에 있는 것처럼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In what ways should we live like we are in the last days?
7.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소망의 성취라는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How does the fact that Jesus is the fulfillment of every Old Testament hope affect the way we should study and preach from the Old Testament?
8. 잠깐 시간을 내어 롬 8:18-25 을 읽고 하나님 나라의 개시, 지속, 완성에 대한 언급들을 모두 표시해 보라. 이 구절로부터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삼 단계 모두와 관련하여 어떤 교훈들을 만들 수 있는가? Take a moment to read Romans 8:18-25 and note all the references to the inauguration, continu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kingdom of God. What teaching points could you make from this passage in all three stages of the kingdom?
9. 이 강의를 통하여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인가?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insight you have learned from this study?
10. 이 강좌를 마친 후에 당신은 성경신학의 어떤 분야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가? After finishing this series, what areas of biblical theology would you like to study further?